

# 감동이 담긴 신나는 축제 '천안흥타령춤축제' 개막



1



2



3

1 천안흥타령춤축제 쇼케이스  
2 국제춤대회  
3 전통무

예로부터 가무를 즐겼던 한국인 특유의 정서인 '흥'은 우리 모두를 신명나게 만드는 춤의 본질이기도 하다.

이 흥겨운 춤들이 한데 모이는 축제의 장이 사통팔달의 고장 천안에서 펼쳐진다.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천안삼거리공원을 비롯한 주요 공원에서 세계적 춤 축제로 성장한 '천안흥타령춤축제 2021'이 열린다.

올해 천안흥타령춤축제는 17주년을 맞이해 더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. 개·폐막식 외에 성별과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춤 경연,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규모의 거리댄스퍼레이드를 준비했다.

또 세계 각국의 춤을 한자리에서 관람할 수 있는 국제춤대회, 올해의 춤 스트리트댄스, 전국대학치어리딩대회, 막춤대첩, 솔로&듀엣 컴

피티션(Solo&Duet competition), 프린지 공연, 체험 및 부대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.

7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지역 대표 공연예술제로 선정된 천안흥타령춤축제는 국내 최고, 최대의 춤 축제로 남녀노소 구분 없이 누구나 춤으로 하나 돼 신나게 즐길 수 있다. 세대와 인종,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춤들의 향연은 방문객의 마음을 풍요롭게 만든다.

축제를 찾는 방문객들은 모두가 한데 어울리는 즐거움의 한마당으로 유쾌한 경험을 할 수 있다.

천안시 관계자는 "천안흥타령춤축제를 모두가 무대의 주인공이 되는 열린 축제, 축제장 곳곳에서 재미를 느끼고 방문객 모두가 함께 어울려 즐기며 화합하는 대동의 축제로 만들기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"고 말했다. ●